

시들지 않는 아라가야의 봄 '말이산고분군'



말이산 4호분 출토 수레바퀴 모양 토기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말이산고분군(사적 제515호)은 찬란했던 아라가야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52만5천21㎡의 면적으로 아라가야 시대 최대 고분군이며, 현재 '가야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말이산의 봉토분은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조영됐다. 그 분포는 남과 북으로 이어진 주 능선과 서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가지 능선의 정부(頂部)에 대형의 봉토분이, 사면부에 중소형의 고분이 있다.

말이산의 북쪽 일대에는 아라가야의 전신인 삼한 시대 안야국(安邪國)의 목관묘와 목곽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말이산고분군은 기원전부터 아라가야의 멸망 때까지 약 550년간의 고분들이 누대로 조영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고분군에는 토기 2천10점, 철기 2천479점, 장신구 3천381점, 기타 외점 등 총 7천961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이는 아라가야가 독자적으로 형성·발전시켰던 찬란한 문화와 고대 한반도 남부의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교류·갈등·정복 등의 관계를 반영해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출토되는 토기는 주로 통모양굽다리접시와 불꽃무늬굽다리접시, 손잡이잔, 문양뚜껑, 각종 항아리와 그릇받침 등으로 4~5세

기 아라가야 양식 특유의 토기들이다. 철기는 '철의 왕국'이라 일컬어지는 아라가야답게 수준 높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등근고리큰칼·쇠창·화살촉 등의 무기, 투구·판갑옷·비늘갑옷 등의 무구, 말투구·말갑옷·재갈·안장 등의 말갖춤, 새모양장식을 붙여 만든 미늘쇠 등이다.

특히 대형봉토분에만 부장되는 덩이쇠는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고대 국가로 성장한 아라가야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또 아라가야를 상징하는 동시에 대외교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불꽃무늬토기는 아라가야의 우수한 문화상을 엿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이곳 13호분의 무덤에서 내부 덮개석 별자리와 벽면 채색이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는 45호분에서 1천600년 전 집모양·배모양·등잔모양·사슴모양 빨잔 토기 등 보물급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돼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❶



아라가야 왕도 함안

불꽃처럼 타올랐던 아라가야(阿羅加耶)의 신비로운 역사가 살아숨쉬는 곳, 고대 역사의 숨결과 향기가 넘치는 경남 함안으로 오십시오.

함안말이산고분군 13호분 별자리 문양

2018년 12월 함안 말이산 13호분에서 돌덧널무덤의 천장 덮개들에 새겨진 남두육성과 청룡별자리 등 125개의 별자리가 확인되었다. 고분에 별자리를 표현한 사례는 가야고분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가야인의 우수한 천문사상을 엿볼 수 있다.

함안말이산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중입니다



함안말이산고분군(사적 제515호)